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

Writing means sharing. It's part of the human condition to want to share things - thoughts, ideas, opinions. (Paulo Coelho)

글을 쓰는 것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인생사의 일부이다. (파울로 코엘료)

사람들은 간단한 경구(警句)나 단어(單語)로 사람을 감동시킬 때, 촌철살인(寸鐵殺人)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글자가 지닌 원래의 뜻은 '손가락 한 개 폭 정도의 무기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무기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살릴 수도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입에 담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끔 나의 글을 읽은 분들로부터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힘이 났습니다.”와 같은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다. 한동안 글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을 때는 왜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오는 분도 있었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내가 글을 쓰도록 용기를 주는 분들이다.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로 다가와 활짝 웃으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만나면 쓰신 글 잘 읽고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라며 인사를 해 주셨다. 사실은 그분의 칭찬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중이다.

베스트셀러 ‘연금술사(The Alchemist)’로 우리에게 알려진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의 말처럼,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우선은 글을 쓰는 동안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일깨우고 싶고, 내 생각과 느낌을 내가 알고 지내는 분들과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에 글을 올린다.

내가 글을 쓰면서 지키는 원칙은 한 가지다.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분들이 내가 쓴 글을 읽을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하는 나의 바람이다. 내 글을 읽는 단 한 분이라도 내 생각에 동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렇지만, 나도 책을 몇 권 낸 저자로서 베스트셀러에 대한 욕심과 많은 사람이 나의 글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때

로는 부정적 언어, 세상을 비판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원색적인 말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까 하는 유혹도 받는다.

그럴 때면,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나의 자존감을 살리도록 나를 위한 배려의 말씀을 해 주신 한 목사님을 떠올린다. 그 목사님과의 잠깐의 대화로 나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자극적인 언어,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면, 입을 다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만 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중이다.